



서구, 양학선 기념관 개소 서구는 지난 18일 오후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구영웅 사진작가 및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3동 커뮤니티센터와 양학선 기념관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구 제공

이예원, 2023 위믹스챔피언십 '우승'

5언더파 1위...상금 25만 위믹스(약 5억9250만원)



이예원 S-Oil 챔피언십 2023 FR 2번홀 티샷.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과 상금왕을 탄 이예원(KB금융그룹이 이벤트 대회 위믹스 챔피언십(총상금 100만 위믹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예원은 19일 부산 기장 해운대 비치 골프 앤 리조트(파72)에서 열린 '위믹스 챔피언십 2023' 둘째날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우승했다.

시즌 왕중왕전 성격인 이번 대회에서 이예원은 전날 패치플레이에서 한진선을 2홀 차로 격파하고 파 이벌 A에 진출했다.

스트로크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파이널 A 경기에서 이예원은 한때 노승희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파5

12번홀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선두로 나섰다. 파5 16번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해 노승희에 1타 차로 쫓겼지만 나머지 17번홀과 18번홀에서 타수를 잃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이예원은 상금 대신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받는다. 25만 위믹스(약 5억9250만원)를 수령한다.

올 시즌 대상과 상금왕을 차지한 이예원은 이벤트 대회에서까지 정상에 오르며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4언더파로 2위에 오른 노승희는 12만 위믹스(2억8440만원), 공동 3위 임진희와 이소미, 성유진은 8만 위믹스(1억8960만원)를 받는다.

클린스만호, 이번에는 중국 원정 나서

손흥민·이강인·황희찬 등 공격진 골맛 거친 경기 예상...“우리 것만 잘하면 돼”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대한민국 이강인이 팀의 다섯번째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23년 마지막 A매치 유종의 미를 노린다. 11회 연속 월드컵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중국을 상대로 예선 2연승을 꾀한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21일 오후 9시(한국시각) 중국 선전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을 치른다.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둔 한국은 C조 1위를 기록 중이다. 같은 날 중국이 태국 원정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은 3점으로 같지만, 득점과 다득실에서 앞서 순위표 최상단에 자리했다.

이로써 9월, 10월에 이어 A매치 5경기 연속 무패(4승1무)를 달린 한국은 2023년 마지막 A매치인 중국전에서 유종의 미를 정조준한다.

클린스만호는 싱가포르전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아시아 강호인 한국을 상대로 라인을 깊게 내려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을 무너트리는 방법을 체득했다.

꾸준하게 윙패스와 전진패스를 섞으면서 상대 라인을 흔들다 보면 결

국 체력적으로 지친 상대가 틈을 보인다.

이때 정확하면서도 빠른 패스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양 날개에 위치한 황희찬(울버햄튼)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측면 수비로 나선 이기제

(수원삼성), 설영우(울산현대)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또 중앙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정승현(울산)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달하는 롭패스도 좋은 무기가 되는 걸 확인했다.

LG 오지환·KIA 박찬호, 수비상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

포수 양의지·1루수 박병호·2루수 김혜성·3루수 허경민



LG 트윈스 오지환(왼쪽)·KIA 타이거즈 박찬호.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빛나는 LG 트윈스 오지환과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나란히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올

해 제정된 KBO 수비상의 포수, 내야수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오지환과 박찬호는 총점 합산 결과 87.5점으로 동률을 이뤄 공동 수상했다.

오지환은 투표 점수 75점, 수비 점

수 125점을 기록했고, 박찬호는 투표 점수 66.67점에 수비 점수 20.83점을 얻었다. 박찬호(SSG 랜더스)이 79.17점으로 3위가 됐다.

KBO 수비상은 수비 능력만을 평가해 포지션별로 수여한다.

감독, 코치 9명, 단장 등 각 구단당 11명씩 총 110명의 투표로 정하는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수상자를 정한다.

지난 17일 1차로 투수, 외야수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고, 이날 포수와 내야수 등 나머지 부문 수상자를 공개했다.

포수 부문에서는 KBO리그 최고 포수로 손꼽히는 양의지(두산 베어스)가 수상자로 뽑혔다.

양의지는 투표인단으로부터 34표를 받아 투표 점수 75점을 획득했고, 포수 무관 도루를 제외한 도루 저지율과 클로킹, 공식 기록 등 포수 수

아울러 황희찬, 이강인뿐 아니라 손흥민(토트넘),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리치타디) 등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물 오른 경기 감각을 이어갔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전을 앞두고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선수들의 정신력도 남다르다. 중국은 유독 거친 플레이로 상대팀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팬들 특유의 강성 응원과 편파 판정 우려도 있다.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다수 억울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만, 태극전사들의 각오는 달랐다.

‘주장’ 손흥민은 싱가포르전 이후 “화가 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전술일 수 있다. 휘발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라고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 리그에서 활약했던 김민재도 “(원정팀이었던) 싱가포르도 만만치 않게 거칠었다. 우리도 중국에 (원정팀으로) 가면 똑같이 경기할 것”이라며 “수비에서부터 거칠게 하면 경기가 편해질 것이다”며 초반 기선 제압을 예고했다. /뉴스시스

비 기록 점수에서 17.41점을 받아 총점 92.41점으로 포수 부문 1위를 차지했다. 80.8점을 받은 박동원(LG)과 70.54점의 김태균(KIA)이 각각 2, 3위였다.

1루수 부문에서는 박병호(KT 위즈), 2루수 김혜성(키움 히어로즈), 3루수 허경민(두산)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박병호는 투표에서 56표를 득표하며 75점의 투표 점수를 획득했다. 투표, 수비 점수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박병호는 총점 100점으로, 오스틴 딘(LG·68.75점)을 큰 차이로 제쳤다.

2루수 수상자 김혜성은 투표 점수 75점(64표), 수비 기록 점수 20점으로 총점 95점을 획득했다. 허경민은 투표 점수 75점(31표), 수비 기록 점수 8.33점 등 83.33점을 얻었다.

수상자들에게는 2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되는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함께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뉴스시스

羅海 66번 중매인

자연산 뽕낙지 전문

뽕낙지 · 홍어 · 전복 · 하모(갯장어)
곰창김 · 매생이 · 계절수산물

싱싱하고!! 저렴한게!!

전복

● 13~15미	31,000	● 9~10미	38,000
● 11~12미	34,000	● 8~9 미	40,000

흑산홍어

수입	국산
(小박스) 50,000	(小박스) 70,000
(中박스) 70,000	(中박스) 130,000

갯장어(하모)

손질 (1KG) 25,000

회&샤브 선택 ※택배비 5000원 별도

흑산홍어는 마리 단가 (분외)

66번중매인 해라수산

뽕낙지·홍어·전복·하모·문어

전국.택배.버스.발송

010-2421-3246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5

☎ 농협 302. 2421. 3246. 71 (예금주. 권해라)